

진관타오·류칭핑, 『관념사란 무엇인가』

— 20세기 중국, 미완의 근대인가 근대의 유산인가 —

이종민 | 경성대학교 중문과 교수

미국 금융위기 이후 G2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서구 비평가들은 더 이상 중국붕괴론이나 중국거품론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모델론은 중국의 성장방식이 서구사회와 다른 독자적인 발전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¹⁾의 저자 마틴 자크(Martin Jacques)는 더 나아가 중국이 서구가 지배하고 있는 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과감한 상상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이지만 긍정적인 시선의 영역이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한 재평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메가트렌드 차이나』²⁾에서 비민주적 독재정치의 대명사로 비판받던 공산당 통치를 “상향식 참여가 두드러지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상의 투명성이 증가하는 수직적 민주 사회”를 구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과거처럼 일당 독

1) 안세민 옮김, 2010, 부키.

2) 존 나이스비트·도리스 나이스비트, 안기순 옮김, 2010, 비즈니스북스.

재체제라고 비판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진관타오(金觀濤)·류칭핑(劉青峰)의 『관념사란 무엇인가 1·2』³⁾(이하 『관념사』로 약칭)는 이런 중국모델론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학술적 반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인들이 찬탄해 마지않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눈에 비친 중국은 여전히 전통적 상식이성과 그 현대적 변형으로서 사회주의의 도덕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낙후된 반(反)모델적 사회에 불과하다. 저자들이 중국 사회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화대혁명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모두 베이징 대학의 학생이었다. 현실에서의 잔혹한 투쟁과 이상과의 괴리로 우리는 심각한 환멸과 고뇌에 빠졌다.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중국 봉건 전제사회의 모든 병폐가 현실생활에서 드러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혁 기억이 저자들을 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아울러 와해 분화의 길을 걸어간 신계몽주의 지식인들과 달리 봉건유습과 문혁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학술적 고뇌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게 한 것이리라.

저자들의 이런 문제의식은 앞선 저작들인 『홍성과 위기—중국 사회의 초안정구조를 논함』(1982), 『개방 중의 변천—중국 사회의 초안정구조 재론』(1993), 『중국 현대사상의 기원—초안정구조와 중국 정치문화의 변천』(2000)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이 저작들을 통해 중국 사회는 인간의 주지주의적 의지를 통해 변하지 않는 초안정구조와 이를 사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식이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대동란이 발생하여 왕조가 교체되는 변화가 있지만 결국 초안정구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순환만이 반복되며, 이렇게 정체된 중국 사회는 외부적 충격 즉 서구 근현대 사상과의 융합을 통해 철저히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저작들이 중국 봉건사회는 왜 장기 지속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관념사』는 어떻게 봉건유습이 중국 근현대 관념사 안에 지속되어 서구 근대 관념의 수용과 의미

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적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담론이 지니고 있는 실증의 허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1830년에서 1930년 사이의 방대한 중국 근현대사상사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그중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라고 생각되는 과학, 민주, 진리, 권리, 개인, 사회, 공화, 경제, 민족, 세계, 혁명 등의 기원과 전파 그리고 재구성 과정을 어휘통계학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기존의 한자어가 변용되고 또 신조어가 새롭게 생성 유통되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획기적인 연구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관념사』의 저술의도가 순수한 실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념사』는 실증자료를 통해 중국 근현대 사상체계가 어떤 관념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성립과 해체의 반복 속에서도 남아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상의 파편들”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근현대 정치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념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사상사적 시각에서만 놓고 보면 저자들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난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증방법의 혁신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다. 관념사는 분명 새로운 영역이지만 그 시각은 여전히 ‘신문화운동의 계몽적 임무 혹은 서구 자유주의적 근대 기획은 중국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관점을 통해 자신들의 거대담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것인지 먼저 민주와 개인의 관념에 관한 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민주(民主)의 전통적 의미는 인민의 복지를 위한 군주의 전제통치인데, 현대 서양의 정치제도가 중국에 소개된 후 민주(民主)는 민선지도자와 인민통치의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공화정치(共和)의 희망을 거치고 나서는 또 인민민주독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인민민주독재 개념은 문혁 시기에 프롤레타리아의 전면적인 독재정치로 발전하여 한 사람의 전제통치가 되어 여전히 사람들에게 민주가 중국 전통문화에서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한다. 또 개인은 individual

3) 양일모 외 옮김, 2010, 푸른역사.

의 번역어로서 1900년을 전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개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개인의 자주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신문화운동 시기에 개인의 권리관념이 서양과 분리되어 전통적인 군체의 원리가 개인의 권리를 압도하고 정치주체로서의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화된 개인'으로 전화되어 독립된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결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방식은 다른 관념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근현대사 시기구분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기한다. 제1단계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양무운동 시기로 전통 정치문화 관념을 이용하여 서양의 근대 관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시기. 제2단계는 청일전쟁에서 5.4신문화운동 이전까지(1895~1915)로 전통 문화에 없던 대량의 서구 근대 관념들을 가장 개방적으로 학습하여 수용하는 시기. 제3단계는 1919년 신문화운동 시기 이후로 모든 외래 관념을 소화·종합·재구성하여 중국 특유의 현대 관념을 형성하는 시기. 이러한 3단계론은 수용대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양의 기물(器物)을 도입하는 양무운동 시기, 제도를 도입하는 변법운동 시기, 가치를 수용하는 신문화운동 시기로 구분하는 기존의 정태적인 3단계론과 달리, 외래 관념에 대한 중국인의 수용태도와 문화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매단계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3단계론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동안 개량주의 시기라고 폄하되던 제2단계가 서양 관념을 가장 개방적으로 학습하여 전통 관념과 중첩되지 않는 새로운 서양의 관념들을 배제하던 방식을 극복함으로써 서구 근대성의 원래 의미에 근접한 시기라고 적극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의 정치주체인 신사가 근대국가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권리주체로서 독립된 개인이 다양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교적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근대 관념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반전통주의적 전반서화의 시기로 평가되던 제3단계는 신사들의 정당정치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중서이분 이원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

양 관념에 대한 개방적 학습이 실패하고 전통문화의 일원론적인 힘(상식이성)에 의해 근대 관념이 재구성되어 중국식의 정형화된 주요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시기라고 비판되고 있다. 바로 제3단계 시기에 향후 중국 사회를 지배하는 혁명이데올로기들이 정립되어 자유주의적 근대기획은 실패하고 집단적 전제주의 시대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이런 비평은 중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 자체는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단 앞선 저작들과의 시각적 연속성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근현대 관념사 속에 내재한 전통적 사유방식(상식이성)의 흔적을 독해하는 것은 린위성(Lyn Yu-Sheng)이 『중국의식의 위기』⁴⁾에서 5.4반전통주의에 내재한 전통 지식인의 사상문화적 접근방식과 유기론적 사유방식을 분석한 것과 유사하며, 신문화운동 이후 군체의 원리가 개인의 권리를 압도하여 전제주의 체제가 되었다는 해석은 리저허우(李澤厚)가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⁵⁾에서 5.4 이후의 중국사를 구망이 계몽을 압도하는 서사로 설명하는 시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계몽주의 지식인이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감과 그 사상적 실천적 유사성이 담론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관념사』의 시각을 서구 근대성의 거울을 통해 중국의 낙후성을 극복하려는 오리엔탈리즘의 변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 중국 사회에 비민주적이고 전제주의적인 관행이 잔존하는 상황 하에서 미완의 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정치비평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논쟁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은 논리형식 차원에서의 오리엔탈리즘 변형 여부가 아니라 미완의 근대성으로 해석될 수 없는 '번역된 근대성'(리디아 리우)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외래 관념의 충실한 학습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는 역사의 변화하는 맥락에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문화정치적

4)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1978,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5)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김형중 옮김, 1992, 지식산업사.

목적에 의해 외래 관념을 수용·재구성하는가의 문제를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들도 “한 민족이 어떤 단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흔히 내부의 문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왜 이 단어를 수용하였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에서 보이듯이 ‘번역된 근대성’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근대성의 문제를 종합하여 분석한 영역은 신사들이 개방적으로 서구 근대 관념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유교적 공공영역을 창출했다고 평가하는 제2단계 시기에 국한될 뿐이다. 『관념사』에서 탁견이라고 칭할 만한 해석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제2단계 시기인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3단계 시기의 관념 해석은 저자들의 이러한 균형 감각이 깨어져 특정한 시각에 의해 압도되어 가고 있다. 즉 5.4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폐기와 현대적 상식이성으로서 사회주의 도덕 이데올로기의 일원화로 이 시기를 해석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공화정치가 실패한 중국 사회에서 왕조교체를 상징하는 전통적 혁명관과 집단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는 ‘초안정구조’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탈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세계사적 문명 전환의 차원과 연계지어 중국 사회주의의 의미를 묻지는 않는다. 가령 신문화운동 이후 군체의 원리가 개인의 권리를 압도한다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지만, 5.4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개인해방의 전망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매료된 것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단절된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단독적으로 외부 현실에 저항하는 자유주의적 방식을 넘어 소외된 개인과 공동 운명을 지닌 집단으로서 ‘평민(무산자)’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평민 해방을 바로 개인 해방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유방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와 문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부각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사회주의의 편향성 문제 역시 초안정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관념사 밖에서, 건강한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질곡에 빠지게 만든 국제사회의 ‘전쟁과 사회주의의 변주곡’(오쿠무라 사토시奥村哲)의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공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을 계몽주의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경우 정작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중심축으로 진화한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변화와 사회적 모순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형성의 동력을 놓쳐 버릴 수도 있다. 20세기 중국혁명을 가장 급진적으로 비판한 『고별혁명』⁶⁾의 결론에서 리저허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공산당 정부의 안정된 정치기반 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당면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념사』의 저자들 역시 제2단계 시기의, 국가와 엘리트 중심의 위로부터의 공공영역 창출을 긍정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서두에서 말한 ‘수직적 민주주의’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혁명과 결별한 이들이 근대 사회에 대한 상을 자유주의적 범주 속에서만 사유할 때 그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중심축이 된, 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현실은 인류에게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그 출로 가운데 하나는 담론 내부에 머무는 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담론 밖의 사회 현실 및 그 변혁 가능성에 관해 다시 질문을 던지며, 담론과 현실의 소통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20세기 중국의 이상적 사회는 실패했지만 사회적 이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 리저허우 · 류짜이푸, 김태성 옮김, 2003, 북로드.